

경찰, 사시합격자 10명 특채

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사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2005년도 경정 특별채용 합격자 10명을 발표했다.

총 89명이 지원해 8.9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이번 특채에서는 권은희(32세.여)씨가 여성 사시 합격자로서는 처음으로 합격했다.

97년 전남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권씨는 사시 43회에 합격, 지난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현재 청주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에 근무하고 있는

사시 출신은 29명에 달하지만 여성은 한명도 없었다.

권씨는 경찰 경정 특채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 “사법연수원 시절 검찰 실무실습을 받으면서 경찰이 수사 업무의 70% 이상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매력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경정 특채 합격자들은 12주 기본교육과 8주 실무실습을 거친 후 일선서 수사과장이나 형사과장으로 배치된다.

제대군인 지방자치경찰 채용

이르면 금년대로 제대군인들이 지방자치경찰로 채용될 전망이다.

또 공익근무요원 50명 이상이 복무하고 있는 31개 기관에 예비역 준·부사관을 우선 채용해 공익요원 전담 관리자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최근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정부 방침에 의거해 금년 지방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자치경찰요원, 병무청의 공익근무자 전담관리요원 등 2천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며 우선, 금년 신규 채용되는 자치경찰 3천 명 가운데 일정 비율을 제대군인으로 채용기로 하고 오는 10월 지방자치경찰제 법제화 때 반영하기로 했다.

경찰청, ‘미아찾기 홈페이지’ 3월 개설

경찰청은 최근 미아찾기 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 내의 미아찾기 코너를 독립시켜 ‘미아찾기 홈페이지’를 3월에 개설한다고 밝혔다.

미아찾기 홈페이지의 인터넷 주소는 미아찾기 신고전화 번호인 ‘182’를 응용해 ‘www.182.go.kr’로 정했으며 주소창에 182만 입력해도 접속이 가능하다.

전국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 등에서 미아 관련자료를 등록하면 자

동으로 미아찾기 홈페이지에 올라오게 되며 이 자료들은 관련 부처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도 자동으로 제공된다. 또 전국 2천176개 미아 보호시설에 미아 수배전단을 동시 발송하는 기능과 함께 미아 보호시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도 갖추게 된다.

경찰은 미아 가족과의 간담회 및 시스템 점검 작업을 거친 뒤 홈페이지를 개설 할 예정이다.

감식형사가 ‘범죄현장 탐지기’ 개발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증거수집 활동을 벌이는 과학수사계 형사가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탐지기를 개발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명정호(33세)경장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연구한 끝에 ‘범죄현장 탐지기’라는 감식장비를 자체 개발했다.

‘범죄현장 탐지기’는 3m이상 날아나는 탐지봉 끝에 소형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롱 틈새나 높은 장소를 카메라와 연결된 LCD모니터를 통해 손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또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하면 야간에 범죄현장을 촬영해 비디오녹화를 할 수 있으며 대테러 치량검문

시 차량 하부를 관찰하는 기존의 반사경을 대체할 수도 있는 만능 탐지기다.

명 경장은 각종 범죄현장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 높은 곳이나 하수구 안처럼 더러운 곳을 관찰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던 중 낚시TV를 보다가 탐지봉 끝에 단 소형카메라로 물속의 물고기를 관찰하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 ‘범죄현장 탐지기’를 개발하게 됐다.

명 경장은 “감식에서는 현장관찰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미량한 장비가 없어 감식형사들의 어려움이 컸다”며 “이 장비가 많이 보급돼 육안으로 못찾는 증거를 많이 찾아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 성황



국가 보안법 사수 국민대회가 지난 2월 2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구홍일 경주회장을 비롯한 수도권 경주회원, 보수 안보단체 회원 등 8천여명이 참가해 조국안보에 대한 애국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이날 행사는 살을 에이는 듯한 혹한 속에서도 조국 안보를 열망하는 애국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정기승 한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회장은 “우리는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지켜보므로

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번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국가 보안법은 우리 안보의 마지막 보루이자 상징이니 만큼 기필코 그 폐지 기도를 저지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 자리에서 애국단체와 애국시민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열린 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철회의 촉구하는 한편 결연한 의지로 뜻을 관철시킬 것을 다짐했다.

특별수기



◆ 모금운동 전개 과정

부산 경우회관 마련을 제13대 이재현 회장이 취임한 1996년부터 태동하기 시작하여 1999년 5월 영도목장원에서 있는 당시 지부회장단, 이사회, 지회회장단 연석 단합대회 席에서 부산 경우회의 자활토대 구축을 위하여 “금년내 회관을 확보하겠다”고 이재현 회장이 폭탄선언(?)을 함으로써 순회원이 환호로 열광하면서 이재현 회장의 굳은 의지의 표현에 감탄과 박수로 화답하였다. 흔히 이런 단합대회에서는 회장이 자기 과시를 위하여 한탄 하는 말일 수 있겠고 또 체면치레로 하는 말이겠지 하겠지만 사실 이재현 회장은 부산지방에서는 신뢰성이 두터운 인사이기 때문에 회원 모두가 그의 말을 굳게 믿고 또 꼭 실천하리라 확신하면서 뜨거운 박수를 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이재현 회장이 한번 한다면 한다”는 그 특유의 신뢰성을 우리 모두는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해 6월 구체적인 회관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무책임이 부회장인 나에게 맡겨지므로 해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즉시 경우회의 기존조직을 회관확보 모금조직으로 전환하여 소요재원을 7억 5,000만원으로 잡고 기하 확보된 2억 5,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여원은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마련하기로 하고, 먼저 우리 회원을 통한 모금활동에 들어가면서 이재현 회장이 1억원을 쾌척하고 자문위원 회장단이 각각 500만원 이사금이 100만원씩을 내 놓고 모금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모금이 시작되자 우리 회원은 심시일반으로 1만원에서부터 10만원 또는 그 이상의 성금을 너도나도 내므로서 흔하길 모래알 조직이라고 하던 현형직이 어떤 동기

가 부여되었을 때는 과력을 발휘하는 응집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번 경찰은 영원한 경찰이다”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99년 11월 이팔초 당시 부산경찰청장도 부산 경우회가 회관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직 선배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에 현직도 순회원이므로 희망자에 한하여 적극 동참하자”고 호소하여 부산경찰청을 비롯한 15개 경찰서별로 현직 경찰관들이 모금에 참여 함으로서 모금운동은 가속도가 붙게 되었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당시 안상영 부산시장이 1억원, 경우회 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던 시도운영자금 중 기금 1억원을 영달받아 회관마련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순조로운 모금이 진행되어 회원모금 4억 1,300만원, 현직 7천 400만원, 중앙회, 부산시 등 총 6억 8천 8백만원이 모금되었으며, 임대전세금, 이자, 기타 수입을 합쳐 10여여원의 재원이 조달됨으로서 소기의 자금 조달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고 회관건물 물색작업에 들어갔다.

◆ 회관건물 매입 경위

이렇게 마련된 기금을 토대로 하여 회관으로 사용할 건물을 어떻게 매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먼저 건물의 수익성(반드시 자급자족이 가능)과 교통의 편리성, 그리고 건물의 규모 등 다방면으로 검토에 검토를 거듭한 결과 우리는 법원경매 물건이 가격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이재현 회장이 직접 상근부회장을 조장으로 하는 법원경매물건 선정조를 편성하여 법원경매일에는 반드시 경매장에 출장, 물건을 살피도록 했다.

이렇게 4~5개월 동안 다각도로 회관 매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0년 8월 중순 경매에 나온 현 회관건물이 가격, 규모, 위치, 교통 편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현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경매에 참가하고 보니 응찰자가 5명이나 되었다.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입찰에 임하였으나 역시 경험 부족으로 낙찰에 실패하고 신 모씨가 낙찰을 받았다.

우리는 낙찰실패에 대한 허탈한 마음으로 의기 소침해 있을 때 이재현 회장은 대담하게도 그 자리에서 낙찰자를 상대로 돈을 더 얹어주고 우리가 다시 매입하자고 제안하면서 실무교섭자로 부회장인 나를 지명했다.

곧 낙찰자와 협의의 시작하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낙찰자가 우리 경우회원임을 알게 되었고 몇 차례의 교섭 끝에 그 낙찰자도 우리 전체 경우의 휴식처 마련을 위한 좋은 뜻을 이해하고 원만한 가격에 타협이 이루어져 8,000만원을 더 얹어주고 8억 3,000만원에 계약하게 되었다.

낙찰에 실패하고 8,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더 주고 매입은 했으나 그 당시 時勢를 때 그래도 低價로 매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모두들 흐뭇한 마음으로 파안대소하면서 기분 좋게 오찬을 나눌 수 있었다.

◆ 보존수속

매입당시 건물점검과 대수리를 진행하는 한편 이사회를 소집 정관을 제정하고 명칭을 부산재향경우회로 하고 소위 권리능력 없는 법인을 만들어 관할국정에 신고하여 등기소에 이전 등기까지 하여 재산권(부동산)을 보존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

◆ 회관운영

당시까지 부산지방경찰청 3층에 무상으로 있던 지부사무실을 2001년 11월 30일 매입건물로 이사하였으며, 회관건립을 영원으로 기록

하기 위하여 회관좌편에 부산경우회관 마련 기념비를 세우고 회관 내에 獻·誠金을 낸 회원 및 현직의 부서별 명패를 경우회 회의실에 게시하여 그 뜻을 기리므로서 명실공히 부산경우회 창립 37년만에 회관마련의 숙원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2001년 11월 20일 KBS부산홀에서 6,000만원 예산으로 당시 안상영 부산시장과 유홍수 국회의원, 이균범 당시 경주회장, 신 훈 부산은행장을 비롯한 시내주요기관장 경주회원 및 가족 등 2,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망연예인을 초청한 회관건립 경축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자족의 의미를 되살리는 기념행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현재 회관에는 비독관, 장기관, 라면, 취사실을 준비 회원사랑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도 공개하고 있다.

우리 회관은 부산의 교통 요지에 자리 잡고있어 아직까지 임대료에 지장은 없으며 회관규모는 지상 7층 건물로 대지 93평, 연건물면적 491평으로 지하 1층(주차장)과 7층(경우회 사무실)을 제외

한 2층~6층을 9개 업체에 임대, 월임대수입 685만원으로 자립운영하고 있으며 아직 남아있는 부채는 전세보증금 1억 7,500만원으로 이것도 매월 적립하고 있는 정기예금으로 앞으로 3~4년 후면 모두 청산하게 되어 부채 한 톨 없는 완전한 우리의 회관으로 우뚝 설 수 있을 날을 기대하고 있다.

◆ 結言

白手空拳으로 시작한 부산경우회가 불원 10여원이 넘는 부자단체가 될 것이라는 어설픈 희망을 내다보면서 “이제 우리는 든든하고 희망적인 내일이 있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보다 크고 야무지게 뭉쳐 더불어 살아가는 경우회로 만들어서 후배에게 물려주는 것 이외에 내 마음속은 텅텅 비어 있다.

이 재산은 회원들의 힘과 호주머니를 털어 만들었고 또 영원으로 기록 후배에게 또 그 후배에게 고스란히 傳授될 것이다.

저는 동지 여러분들의 심부름을 한 큰 영광만을 가슴 한아름 안고 조용히 혼자 노후를 보낼 것이다.

그동안 협력과 충고 그리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회원 여러분의 노후 평안과 만수무강하시기를 빌 뿐이다.

또한 중앙회 구홍일 회장님과 전국의 경주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모금운동으로 마련된 지상 7층 규모의 부산 경우회관.

경우회, 법규정비 위원회 개최

불합리한 법규 변경 및 개정

경우회는 지난 2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조직관련 제규정의 운영과 정에서 도출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내용의 법규 변경 및 개정을 위한 제 1차 법규 정비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병용 위원장을 비롯한 김

진, 이수호, 최병일, 안경근, 박영목, 이규준 등 7인의 위원들은 관련 법규 개정제에 관해 허심탄화한 의견교환을 가졌다. 한편 경주회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0시 6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2차 법규정비 위원회를 가졌다.



제 28기 警友장학금 수여

박종순 이사, 우수학생에게 격려금 1백만원 전달

제 28기 경주장학금 수여식이 최근 신당동 경주사랑방에서 문학동 장학회 이사장, 현성일 경주회 사무총장, 장학회 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경주자녀들에게 면학의 꿈을 키워주는 자리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문학동 장학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열심히 공부하여 경주장학생에 선발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더욱 노력하여 국가발전

의 추석이 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수혜학생 총 35명에게는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 1백만원이 각각 수여된 가운데, 장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박종순 여경회장은 전과목 A학점을 받은 최경윤 양에게 특별 격려금 1백만원을 추가로 전달하는 한편 내내에도 우수한 학생이 나오면 별도의 격려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혀 참석한 학생들과 부모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중앙회장, 강원경우회 방문

각 급회 회원 및 현직 경찰관 격려

전국 각 급회를 방문하고 있는 구홍일 중앙회장이 지난 2월 18일 강원 경주회, 춘천 경주회, 홍천 경주회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 강원 경주회 방문에 앞서 구 회장은 먼저 김남석 강원경주회장, 전재근 중앙회 자문위원장,

전용찬 경주연예회장 등과 함께 강원 경찰청에 들러 정광섭 강원경찰청장과 경주회 활성화와 경찰조직 발전에 관해 환담한후 지방청 상황실에 들러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구 회장은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강원 경주회에 들러 김남석 회장으로 부터 업무현황을 설명듣고 조직운영에 수고하는 경주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오후에는 임무수행중 공상으로 오랜 세월동안 병석에 누워 있는 원로 여경 김영희 회원의 집을 방문하고 위로한후 춘천 경주회와 춘천경찰서에 각각 들러 최철주 회

실에 들러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구 회장은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강원 경주회에 들러 김남석 회장으로 부터 업무현황을 설명듣고 조직운영에 수고하는 경주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오후에는 임무수행중 공상으로 오랜 세월동안 병석에 누워 있는 원로 여경 김영희 회원의 집을 방문하고 위로한후 춘천 경주회와 춘천경찰서에 각각 들러 최철주 회

사이버 時代에 대비한다

전국 경주회 홈페이지 주소制·改定 附翼

경우회 각 급회의 홈페이지 주소가 조정 혹은 신규로 부여된다.

경우회는 사이버 시대를 맞아 각 급회별로 홈페이지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현재 전국의 몇몇 시도·지역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홈페이지 주소 역시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통일성 있는 주소를 제정해 시달하기로 했다.(4페이지 하단 참조)

현재 각 급회 홍보와 운영현황 등을 알리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경주회 소개란을 배너 형태로 개설하고 있으나 단순한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어 능동적인 운영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경남 경주회, 제주 경주회, 서울 강남 경주회 등 몇몇 경주회에서 자체 홈페이지를 개

설해 운영하고 있으나 조직을 상징하는 내용의 통일성이 결여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경주회는 21세기 사이버 시대에 대비, 각 급회별로 홈페이지의 개설운영을 적극 장려하는 한편 조직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소를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반 시도회는 시도 명칭 각 읍결의 첫 스펠링을 앞에도 붙이고 ex-police의 ice를 생략해 **ex-pol.or.kr로, 일반 지역회는 다시 시도와 앞부분에 지역 명칭 각 읍결의 앞부분 스펠링을 추가해 00 **ex-pol.or.kr로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해경 경주회는, 「ex-」를 접두어로, 해양경찰을 뜻하는 kcg(korea coast guard의 약자)를 붙

여 ex-kcg.or.kr로, 해경지역회는 그 앞부분에 지역명칭 각 읍결의 앞부분 스펠링을 추가해 **ex-kcg.or.kr로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전경찰유공자회는「war」를 앞부분에 추가해 warx-pol.or.kr로, 참전 지역회는 그 앞부분에 해당 지역 명칭 각 읍결의 앞부분 스펠링을 추가해 **warx-pol.or.kr로 하고, 여경회는 woman의 약자 wm를 추가해 wmx-pol.or.kr로, 여경지역회는 그 앞부분에 지역명칭 각 읍결의 첫 스펠링을 추가해 **woex-pol.or.kr로 부여했다.

가능회는 speciality의 약자 sp를 추가해 spex-pol.or.kr로, 기능회 3개 지역회는 각각 1,2,3을 추가해 splx-pol.or.kr, sp2ex-pol.or.kr, sp3ex-pol.or.kr로 부여했다.

한편 경주회는 이미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각급회에는 중앙회에서 제정한 주소로 변경할 것을 적극 권장으로 했다.